

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1차 최고

주식회사 프로텍(이하 "존속회사")은 2022년8월5일 개최된 주주총회 같은 이사회(상법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)에서 주식회사 엠솔(이하 "소멸회사")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, 부채,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며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%소유하고 있으며,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입니다. 본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2022년8월8일부터 2022년9월8일까지 아래 기재된 주소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상기 제출기간 종료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30조 제2항(527조의5)에의거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- 이의제출장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-14(관양동)

2022년8월25일

존속회사 : 주식회사 프로텍 대표이사 최승환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-14(관양동)

소멸회사 : 주식회사 엠솔 대표이사 이훈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205, 3층 비320호(성곡동, 타원타크라3차)